

보도시점 2026. 4. 29.(수) 12:00
(2026. 4. 30.(목) 조간) 배포 2026. 4. 29.(수) 09:00

제23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안),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실적점검(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8일(화), 「제23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안),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도 실적점검(안), ▲2025년도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안)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직제 개정('25.10.)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 업무를 과학기술정책국에서 미래인재정책국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특위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과기

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간사위원, 미래인재정책국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교육부의 직제 개정('26.1.)을 반영하여 당연직위원 직위를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으로 변경한다.

②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5년 실적점검(안)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인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과학기술인재에 총 35.7조 원을 투자했으며 연간 약 100만 명 내외의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2025년에는 334개(중앙 217개, 지자체 117개) 세부과제를 통해 9조 2,205억원 투자하여 120.8만 명을 지원하였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과제수	309개	272개	285개	334개	334개
투자액 (전년대비 증가율)	4조 8,828억원	6조 7,899억원 (39.1%↑)	7조 3,635억원 (8.4%↑)	7조 4,005억원 (0.5%↑)	9조 2,205억원 (24.6%↑)
성과달성 현황 ^{주)}	86.4%(254개)	88.6%(233개)	89.2%(240개)	86.0%(282개)	89.2%(296개)
인재지원 규모	96.8만명	96.7만명	106.7만명	114.6만명	120.8만명

주) 성과달성 현황은 총 과제수에서 ‘성과 실적집계 중’인 과제는 제외하고, 100% 목표 달성과제 수만 표시

2025년의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전략1] 미래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과학교실 운영 수혜자 수 ('25) 191,803명, 석사 장학생(신규) 1,222명 영재학교·과학고 SW·AI 교육과정 운영학교 확대(누적) ('24) 10개교 → ('25) 14개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확대 ('24) 507억원 → ('25) 573억원
[전략2] 청년연구자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기초연구지원 ('24) 1조 6,982억원 → ('25) 1조 9,053억원, 국가연구소(NRL2.0) 신설 4단계 BK21사업 지원 ('24) 89,291명 → ('25) 110,347명(누적)
[전략3] 과학기술인 지속 활약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igital Training 지원 확대 ('24) 37,566명 → ('25) 47,699명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강화 ('24) 17,542명 → ('25) 19,727명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교육지원 확대 ('24) 1,145명/937명 → ('25) 1,244명/1,310명 경력단절 여성연구자 R&D과제 지원 ('25) 303명, 고경력 과학기술인 경력전환 교육 ('25) 152명
[전략4] 인재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 본격화, 특성화지방대학 지정 ('25) 7개 신규 지정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확대 ('25) 126명, 해외우수연구기관 인력교류 ('25) 27명

③ 2025년도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국내·외에 체류 중인 과학기술분야 유학생 및 취업자 수 조사가 주요 목적이다.

< 조사 방식 >

- ▶ **[유학생]** 국내 외국인: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25.4.1. 기준)
 국외 한국인: 각국 재외 공관 제출자료(‘25.4.1. 기준)
 - ▶ **[취업자]** 국내 외국인: 체류자격(‘25.12월말 기준) 및 기관실태조사(‘24.12월말 기준)
 국외 한국인: 8개 주요국* 취업비자 및 프로그램 조사(‘24.12월말 기준)
- * 재외동포, 재외과협, 국외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국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美 유관기관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식에서 각국의 재외공관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조사부터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올해는 이공계 유학생 중심 조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취업자까지 확대하여 시범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5년 국내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은 37,943명으로, 대학 과정이 28,651명, 대학원 과정이 9,292명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 별로는 베트남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2.2%, 우즈베키스탄이 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25년 국외 이공계 한국인 유학생은 29,069명으로, 대학 과정이 19,654명, 대학원 과정이 9,415명으로 나타났다. 체류 국가별로는 미국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4.4%, 호주 8.0%가 그 뒤를 이었다.

'25년 취업 및 연구, 구직활동, 창업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수인재·전문인력의 국내 등록외국인 취업자는 34,769명이었으며, 주요국(8개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24 기준)은 73,528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외 한국인 취업자의 체류 국가별로는 일본이 38.2%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5%, 캐나다 21.7%, 호주 2.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해외 우수 인재의 유입 촉진 및 국내 인력 유출 방지 등 과학기술인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④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재직·채용·보직 등 근무 상황, 연구개발 활동, 복지,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한다.

총 5,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4년도 재직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7%이고, 신규채용 비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31.9%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보직자 비율은 13.1%, 승진자 비율은 19.1%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여성과학기술인 진출 확대를 위해 채용·재직 목표('38년까지 30% 원칙) 달성을 한시적으로 권고하고 그 추진실적을 조사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49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여성 재직 비율 30% 이상 기관이 전년 대비 2개 추가되어 총 11개로 조사되었다. 여성 채용비율은 목표 달성 기관이 총 22개로 전년 21개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2024년 이공계 여성 입학생 비율은 33.1%, 재학생 비율 32.7% (자연계열 53.2%, 공학계열 24.5%),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4.1%(남학생 69.7%)로 분석되었다.

⑤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의 2026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성과 점검과 함께 올해의 주요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지난해에는 4명의 유공자를 신규 지정*하여 제도 시행 이후 총 95명의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으며, 헌정식 개최('25.5월), 추모행사(6인) 지원, 공훈록(1천부) 및 교육만화(2천부) 발간 등을 통해 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려왔다.

*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95명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올해는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내 '명예의전당' 전시 공간을 신규 조성('26.12월 예정)하고 카드뉴스·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정책연구, 공청회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7~'31)」(안) 수립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⑥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2026년 시행계획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연구현장 복귀를 지원하고, 지역 여성 이공계 인재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분야 여성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는 경력단절이 발생할 경우 연구역량 회복과 현장 복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공백 최소화와 지속적인 경력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긴급돌봄바우처 사업을 100명 규모로 본격 추진하고, 육아기 연구자 과제(W-브릿지 펀드)를 20건 지원하며,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 유형을 신설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현장 복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 및 테크노파크(TP)와 연계하여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여성 이공계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여중·고등생 대상 이공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1만 4,2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역 연계 경력복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여성 인재의 성장과 활용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여성 과학기술인의 전략기술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 산업계 실무 프로젝트(221명)와 아카데미 교육(1,100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역량 제고와 우수 여성 AI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과 역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되어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앞서 나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바로 ‘인재’임을 강조하고, “미래인재특위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제23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1부.
 2. 제23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요약 1부.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820)
		담당자	사무관	윤명호 (044-202-4824)
<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820)
		담당자	사무관	윤명호 (044-202-4824)
<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820)
		담당자	사무관	윤명호 (044-202-4824)
<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820)
		담당자	사무관	윤명호 (044-202-4824)
<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책임자	과 장	이제준 (044-202-4840)
		담당자	사무관	김애화 (044-202-4841)
<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820)
		담당자	사무관	김성수 (044-202-4844)
<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책임자	과 장	이제준 (044-202-4840)
		담당자	사무관	김애화 (044-202-4841)

붙임1

제23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개요

- (기능)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안전 환경 조성 등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계획 및 전략의 심의·자문
- (일시/장소) '26.4.28.(화) / 서면
- (구성/참석)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부위원 5명(과기정통부(1명), 교육·산업·고용·중기부 각 1명), 민간전문가 18명 등 총 24명

□ [안건] 총 6건 [심의 3건, 보고 3건]

구분	안건명	비고
1호 (심의)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안)	미래인재정책과
2호 (심의)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5년 실적점검(안)	미래인재정책과
3호 (심의)	- '25년도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체류 현황조사 결과(안)	미래인재정책과
4호 (보고)	- '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과학기술문화과
5호 (보고)	-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6년도 시행계획(안)	미래인재정책과
6호 (보고)	-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6년도 시행계획(안)	과학기술문화과

[안건1]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당연직위원 변경(안)

□ 개요

- (추진 배경)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직제 개정으로 인해 특위 당연직 위원 중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위원 직위 변경 추진

< 과기정통부·교육부 직제 개정 >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업무가 과학기술정책국(과학기술혁신기반팀) → 미래인재정책국(미래인재정책과)로 이관('25.10)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 기획·총괄,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26.1)

- (위원 구성)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당연직(정부위원) 5명(간사위원* 포함), 위촉직(민간위원) 18명 등 24명(간사** 별도)

* 간사위원 :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역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 그 직을 대행(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 간사 :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 위원 직위 변경(안)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간사위원으로 지정하고, 교육부 당연직위원 직위를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으로 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	
부 처	직 위(6명)	부 처	직 위(5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간사위원) 연구개발정책실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간사위원)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 교육부 직제 개정사항 반영('26.1)

- 간사위원을 보좌하는 간사 변경(과학기술정책국장 → 미래인재정책국장)

[안건2]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5년 실적점검(안)

□ 점검 배경

- 제4차 기본계획의 '25년도 실적과 기본계획 5개년 성과를 종합 점검
 -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노동부, 산업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법무부, 성평등부, 국토부, 해수부, 인사처, 식약처, 산림청, 지재처, 우주청, 기상청, 농진청

□ 제4차 기본계획 5개년 성과 점검

- 5년간 과학기술인재에 투자(총 35.7조원), 인재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25년 334개(중앙 217개, 지자체 117개) 세부과제를 통해 9조 2,205억원 투자(120.8만명 지원), 성과달성률 89.2%

※ '24년 투자 금액 대비 1조 8,201억원(24.6%)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서는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舊 RISE) 본격화(1조 6,372억원)로 인한 증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과제수	309개	272개	285개	334개	334개
투자액 (전년대비 증가율)	4조 8,828억원	6조 7,899억원 (39.1% ↑)	7조 3,635억원 (8.4% ↑)	7조 4,005억원 (0.5% ↑)	9조 2,205억원 (24.6% ↑)
성과달성 현황 ^{주)}	86.4%(254개)	88.6%(233개)	89.2%(240개)	86.0%(282개)	89.2%(296개)
인재지원 규모	96.8만명	96.7만명	106.7만명	114.6만명	120.8만명

주) 성과달성 현황은 총 과제수에서 '성과 실적집계 중'인 과제는 제외하고, 100% 목표 달성과제 수만 표시

□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

[전략1] 미래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과학교실 운영 수혜자 수 ('25) 191,803명, 석사 장학생(신규) 1,222명 • 영재학교·과학고 SW·AI 교육과정 운영학교 확대(누적) ('24) 10개교 → ('25) 14개교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지원 확대 ('24) 507억원 → ('25) 573억원
[전략2] 청년연구자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초연구지원 ('24) 1조 6,982억원 → ('25) 1조 9,053억원, 국가연구소(NRL2.0) 신설 • 4단계 BK21사업 지원 ('24) 89,291명 → ('25) 110,347명(누적)
[전략3] 과학기술인 지속 활약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gital Training 지원 확대 ('24) 37,566명 → ('25) 47,699명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강화 ('24) 17,542명 → ('25) 19,727명 •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교육지원 확대 ('24) 1,145명/937명 → ('25) 1,244명/1,310명 • 경력단절 여성연구자 R&D과제 지원 ('25) 303명, 고경력 과학기술인 경력전환 교육 ('25) 152명
[전략4] 인재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 본격화, 특성화지방대학 지정 ('25) 7개 신규 지정 •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확대 ('25) 126명, 해외우수연구기관 인력교류 ('25) 27명

[안건3] '25년도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체류 현황조사 결과(안)

□ 조사 개요

- (배경)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을 조사하여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 (근거법령) 「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 ※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 추진 계획(안), ('23.12, 미래인재특위)
 - (방식) 기존 미국 데이터 기반 추정 방식에서 직접 규모 산출 방식으로 개선
 - (유학생) 국내 외국인 :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25.4.1. 기준)
국외 한국인 : 각국 재외 공관 제출자료('25.4.1. 기준)
 - (취업자) 국내 외국인 : 체류자격('25.12월말 기준) 및 기관실태조사('24.12월말 기준)
국외 한국인 : 8개 주요국* 취업비자 및 프로그램 조사('24.12월말 기준)
- * 재외동포, 재외과학, 국외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 조사 결과

- (유학생) '25년 이공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7,943명(대학 28,651명, 대학원 9,292명)이며, 베트남(26.1%), 중국(22.2%), 우즈베키스탄(10.2%), 몽골(6.6%) 순
 - '25년 이공계 국외 한국인 유학생은 29,069명(대학 19,654명, 대학원 9,415명), 미국(44.3%), 캐나다(14.4%), 호주(8.0%), 일본(7.8%), 독일(6.8%), 영국(4.8%) 순
- (취업자) '25년 국내 등록외국인 우수인재·전문인력 취업자 규모는 34,769명,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실태조사(기관)」에 의하면 '24년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은 6,882명*
 - * 대학 3,859명(56.1%), 공공연구기관 550명(8.0%), 기업 2,473명(35.9%) 수준
 - '24년 주요국에 취업 및 연구, 구직활동, 창업 목적으로 체류 중인 우수인재·전문인력의 한국인은 73,528명 수준, 일본(38.2%), 미국(35.5%), 캐나다(21.7%), 호주(2.5%) 순

<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체류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공계	(유입) 외국인	20,959	22,246	23,262	24,187	29,187	37,943
	(유출) 한국인 ^{주1)}	33,545	28,351	31,593	29,337	29,770	29,069
취업자 ^{주2)}	(유입) 외국인	24,456	24,960	26,904	28,933	30,921	34,769
	(유출) 한국인 ^{주3)}	57,789	55,071	63,847	69,157	73,528	-

주1) 한국인 유학생 현황은 '23년 이전까지 미국 데이터(30% 비중) 기반 추정값으로 '24년 이후 단순 비교 불가

주2) 취업, 연구, 연수, 구직활동, 창업 목적으로 체류(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중인 고학력·고숙련자 비자/프로그램의 수치이며, 비자 정보에서 대체로 학위, 전공, S&E 직업 분야 미제공으로 인문사회 분야도 일부 포함

주3) 수치는 비자 신규발급 및 갱신, 취업자 체류현황을 포함하며, 특정기간 동안 개인이 둘 이상의 허가 유형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수치가 중복될 수 있음

[안건4] '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안)

1.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 조사 개요

- 「여성과학기술인법」 제6조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재직·채용·보직 등 근무 상황, 연구개발 활동, 복지, 근무환경 등 조사
 - ※ (대상) 총 5,138개(이공계대학, 공공연구기관,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
 - ※ (조사기간) '25.6월 ~ '25.9월 (조사 기준시점 : '24.12.31.)

□ 조사 결과

○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

- (재직) 여성 비율 '23년 23.1% → '24년 23.7% / 0.6%p 증
- (채용) 여성 비율 '23년 31.6% → '24년 31.9% / 0.3%p 증
- (보직자) 여성 비율 '23년 12.8% → '24년 13.1% / 0.3%p 증
- (승진) 여성 비율 '23년 18.8% → '24년 19.1% / 0.3%p 증
- (연구책임자) 여성 비율 '23년 12.6% → '24년 13.3% / 0.7%p 증
 - ※ 10억 이상 대형과제 연구책임자: '23년 9.1% → '24년 9.2% / 0.1%p 증
- (심의기구) 인사 관련 '23년 15.0% → '24년 18.3% / 3.3%p 증
 - 연구과제 관련 '23년 15.3% → '24년 18.4% / 3.1%p 증

○ 일-생활 균형 제도·인프라 구축 현황

- (법적의무제도*) '23년 93.1% → '24년 92.3% / 0.8%p 감
 - * 휴가제도(출산전후, 태아검진, 유사산, 육아, 배우자출산) 수유시간보장 등 6개
- (자율제도**) '23년 55.5% → '24년 57.0% / 1.5%p 증
 - ** 휴직(난임, 일반), 수유시설, 대체인력, 유연·원격·재택근무제, 휴게실 등 8개
- (육아휴직) '23년 3,264명 → '24년 3,700명 / 436명 증
- (직장어린이집) '23년 59.4% → '24년 61.7% / 2.3%p 증
 - ※ (주요 미설치 사유) 수요 부족(26.2%), 장소 확보 곤란(17.9%), 비용 부담(16.6%) 등

2. 적극적 조치 점검결과

□ 점검개요

- 「여성과학기술인법」 제11조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여성과학기술인 진출 확대를 위해 채용·재직 목표(‘38년까지 30%원칙) 달성을 한시적으로 권고
 - ※ (대상) 과학기술분야 49개 연구기관(정부출연(연) 42개, 공사 부설(연) 7개)
- 기관별 맞춤형 채용·재직목표를 설정(3년 단위)하고 이행결과를 점검
 - ※ (조사기간) ’25.6월 ~ ’25.9월 (조사 기준시점 : ’24.12.31.)

□ 여성과학기술인 적극적 조치(채용·재직목표제) 점검 결과

- (재직목표) 여성 재직비율 30% 이상 기관은 2개 추가되어 총 11개
 - 재직목표 달성 25개, 90%이상 달성 17개로 총 42개 기관(85.7%)에서 긍정적 성과
- (채용목표) 달성 기관 22개(출연연 20, 공사부설연 2)로 전년(21개) 대비 소폭 증가
 - 출연연 평균 여성채용 비율은 25.0%, 공사부설연은 19.7%

3. 이공계 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

□ 분석개요

- 국가승인통계(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자료를 기반으로 이공계 대학 여학생의 입학, 졸업 및 취업 등 재분석
 - ※ (분석자료) 교육·취업통계연보(‘13~’24년, 한국교육개발원)
 - ※ (분석항목) 대학교 자연·공학계열 여학생 입학, 재학, 졸업, 취업 현황 등

□ 조사결과

- (입학) 전문학사 이상(석박사 포함) 이공계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33.1%(’23년 32.2%)
 - ※ 전문학사 이상(석박사 포함) 의·약학계열 입학생 중 여학생은 66.7%
- (재학) 전문학사 이상(석박사 포함) 이공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 32.7%(’23년 31.9%)
 - ※ 자연계열 여학생 비율 53.2%(’23년 52.5%), 공학계열 여학생 비율 24.5%(’23년 23.7%)
- (취업) 전체 이공계 여학생 졸업 직후 취업률 64.1%
 - ※ 이공계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 : (’22) 67.2% → (’23) 65.9% → (’24) 64.1%
 - ※ 이공계 남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 : (’22) 72.7% → (’23) 71.4% → (’24) 69.7%

4. 향후 계획

- 신뢰성 있는 성별 구분 통계 구축, 정책 성과 점검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

[안건5]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2026년도 시행계획(안)

□ **추진 배경**

-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 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의 '26년도 시행계획 수립

□ **'25년도 주요 추진실적**

- (지정) '25년 유공자 4명 지정*, (예우) 헌정식 개최('25.5월), 부총리 간담회('25.12월), (업적 홍보) 공훈록(1천부), 교육만화(2천부), 영상제작**(4편)
 - * 총 95명('17년 32명 '18년 16명 '19년 12명 '20년 9명 '21년 8명 '22년 4명 '23년 4명 '24년 6명 '25년 4명)
 - ** 광복 80주년 기념 '과학기술의 거목들' 제작('25.8월): 故이원철, 故김용관, 故홍창의, 故강대원

□ **'26년도 추진계획**

- (유공자 지정) '26년 유공자 지정계획 수립 및 유공자 지정절차 추진

< 지정절차 주요 개선사항 >

2025년(AS-IS)	2026년(TO-BE)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 발굴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에 젊은 연구자 활동 중인 과학기술인 적극 발굴 · 과학사 전문가들이 자료 검증 단계에 참여하여 업적·공훈 검토 및 신뢰도 강화(신설)
후보자 공적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요	

※ (일정) 후보 공모·발굴(~6월) → 분야별 심사(7~9월) → 최종심사(11월) → 유공자 지정(12월)

- (유공자 예우) 유공자 라운지 이전* 조성('26.2월 완료), 헌정식 개최('26.5월), 2027년도 기념우표** 발행 추진

* 접근성 향상: 기존 한림원회관(경기 분당) → 이전 과기공제회 사옥 15층(서울 강남)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10주년 기념 우표: '27년도 정부 예산 반영 추진

- (3차 기본계획 수립) 「제3차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27~'31)」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실시(~12월)

- (업적 홍보) 국립과천과학관 내 '명예의 전당' 전시 공간 조성('26.12월), 카드뉴스·유튜브 콘텐츠 등 유공자 업적 홍보 강화

* 청소년 등 국민이 업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적 전시 및 체험형 시설 설치

[안건6]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6년도 시행계획(안)

□ **추진배경**

- **(배경)**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4~’28)」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과기인법(제5조)에 따라 '25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2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3개 시·도 지방정부
 - ※ (중앙행정기관) 과기정통부, 고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성평등가족부, 중기부, 환경부, 지식재산처
 - ※ (지방정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 **'25년도 투자액 및 추진실적**

- **(투자)** '25년도에는 70개 세부 과제에 총 1,377억원 투자
- **(실적)** 중앙행정기관 등이 제시한 과제별 추진계획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었으며, 109개 세부사업 중 100개 사업(91.7%)은 목표 달성

4대 전략	100%	80~100%	80%미만	미정	합계
1. STEM분야 여성인재 조기발굴 및 유입 촉진	22	2	-	-	24
2. 여성과학기술인 지속활약 기반 확충	30	5	-	-	35
3. 유망기술분야 여성인재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31	-	1	-	32
4. 포용적 문화확산 및 사회적 기여 확대	17	1	-	-	18
합 계	100	8	1	-	109

□ **'26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① **STEM 분야 여성인재 조기 발굴 및 유입 촉진**

- **(초·중등 여학생 유입확대)** 플랫폼 기반 진로 콘텐츠 개발, 우수 AI 교육모델 확산, 지역 대학 연계 전공체험, 산업현장 탐방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신산업분야 인재육성)** 여대학(원)생 창의·융합형 프로젝트 지원, AI·SW 중심대학 운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 석·박사 인재 양성

- **(이공계 성별균형 교육환경 조성)** 국립대·4대 과기원 여성교원 임용 목표 비율 설정,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우수사례 발굴

2 여성과학기술인 지속 활약 기반 확충

- **(경력단절 방지)** 긴급돌봄바우처 사업(100명), W-브릿지펀드 지원 강화(20건), 연구지원직(Staff Scientist) 트랙 신설 등 경력복귀 지원모델 확대
- **(경력다변화 및 신산업 직업훈련)** AI·지능형 로봇 등 신산업 분야 직업 훈련 제공, 경력단계별 여성 연구자 연구 참여율 확대 및 경력개발 지원
- **(적극적 조치 추진)** 여성과학기술인 재직 목표비율 권고(안)('26~'28) 시행, 정부 소관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임원·관리자 목표제 운영

3 유망기술 분야 여성인재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 **(신산업 강화)** AI·첨단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분야 실무역량 교육, 개인 맞춤형 신산업 분야 진출 커리어 지원서비스 추진
- **(국제협력)** 전략적·자율적 해외 여성연구자 유치 지원,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협력 강화 및 공동연구 기반 강화
- **(기술창업)** ICT, 펌테크 등 여성특화 창업분야 발굴, 아이디어 사업화, 시제품 생산 등 인큐베이팅 지원, 여성전용벤처펀드 조성(167억)

4 포용적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포용적 연구문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우수사례 발굴, WISE 앰버서더 캠페인 추진, 한국다양성협의체 운영 및 DE&I Report 발간
- **(젠더혁신 실효성 제고)** 의·생명 및 ICT 분야 과학기술젠더혁신 연구 지원사업 추진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사회적 역할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롤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아카이브 구축 기획